

V. 尖端 産業 動靜

토요타·마쓰시타
新會社 설립은 자
동차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
한 것임

토요타·마쓰시타, 電氣自動車(EV) 共同開發

○ 共同 出資의 新會社 설립

- 자동차와 전기 분야에서 각각 일본 頂上인 토요타와 마쓰시타는 공동 출자로 금년 가을에 새로운 전기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음
-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00년대 세계 EV시장 규모는 數兆円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대응하여 兩 그룹은 각자 보유한 고도의 技術과 人材를 단일화시킴으로써 세계 EV시장의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음

○ 次世代 蓄電池 개발에 초점

- 토요타·마쓰시타 新會社는 EV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니켈 水素 蓄電池 등 차세대 축전지 개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짐
- 토요타가 이미 개발한 EV는 1회 충전에 주행거리가 200km에 지나지 않고, 가솔린 승용차에 비해 성능이 크게 뒤떨어지는데, 이는 축전지 개발의 낙후성에 기인함
- 니켈 水素 蓄電池는 종래의 鉛電池보다 용량이 크고 가벼우며 수명이 긴 장점이 있음

○ 자동차 환경규제에 대응

- 미국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州에서는 2003년부터 同 지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臺數의 10%를 EV로 판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臺에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관련 메이커에 「販賣 割當量」이 부여됨
-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제 경향에 따라 EV의 性能, 價格에서 자동차 업체간에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토요타·마쓰시타의 EV 공동개발은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日本經濟新聞」, 96. 5.20)

이용자가 늘어나고 정보량이 많아짐에 따라 인터넷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대역 확대나 정보 전송의 우선권 부여와 같은 해결 방안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향후에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는 미들넷이 확대되고, 수요 억제 측면에서는 가격 구조의 변동이 일어날 것임

인터넷의 문제점과 단기적인 변화 전망

○ 인터넷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이용자 수의 절대적 증가, 멀티미디어화의 진전과 상업적 이용의 증가에 따른 정보의 대용량화는 인터넷의 통신 정체를 야기시키고 있음
 -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속을 요하는 정보, 즉 공공 기관이나 기업의 E-Mail 전송이 同伴 停滯 現狀을 보이는 것임
- 문제 해결 방안은 帶域(bandwidth)을 확대하는 것임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투자 비용 때문에 전송 대역 확대를 기피하고 있음
 -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정보 매체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성능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음
- 또다른 대안으로 정보의 내용과 용도별로 전송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제기됨
 -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통신 규약(TCP/IP)으로는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는 기능이 불가능함
 - 최근에는 통신 규약과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각 분야, 각 기업들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향후 수년간의 인터넷 전개 방향

- 인터넷과 인트라넷(웹 기술을 이용한 기업내 네트워크)의 중간 형태인 미들넷(Middle-Net)의 확산
 - 완전 개방적인 인터넷과 폐쇄적인 인트라넷의 중간형
 - 정해진 고객에 대해 양질·고속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터넷 전반에 걸친 접속 서비스도 제공
 - 인터넷을 이용한 假想的 私設 네트워크 서비스 가능
- 통행 우선 순위에 기초한 요금 설정의 확대
 - 통신 대역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요 억제 방안임

(FORTUNE, 1996. 4. 29)